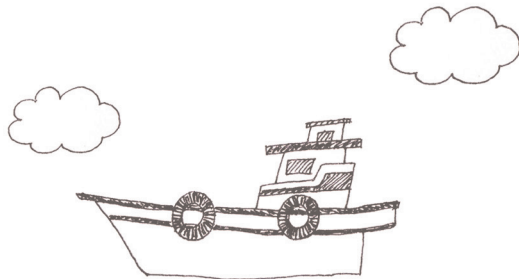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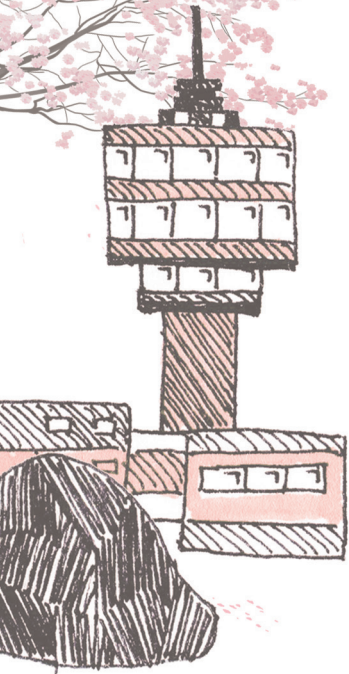


재생이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54021 군산시 구영 7길 129
T.063.454.4477~8 F.063.442.1168

구시청광장으로 놀러오세요! 도시재생 광장마켓

군산공예협동조합 최윤정 대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광장마켓은 구시청 광장을 활성화하고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고자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군산도시재생주민협의체, 군산공예협동조합, 문화기획평비재가 함께 모여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지역문화 행사이다.

도시재생광장마켓 장터에는 지역 공예작가들을 위한 아트마켓(핸드메이드, 공방, 체험마켓)과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하는 중고벼룩 마켓(중고물품, 도서), 통기타 발라드 음악과 색소폰 악기연주 등 버스킹 공연과 체험공예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올 2023년은 다양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협업하여 더 풍성하게 꾸며나갈 예정이며,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경제활동을 체험하며 직접 만든 상품들을 판매하는 활동들 또한 이루어질 예정이다.

도시재생광장마켓은 별도 시의 예산지원 없이 주민주도로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운영될 예정이며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도시재생 광장마켓은 플리마켓 장터 참여자와 버스킹 공연 재능기부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공예협동조합(442-8536)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년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우수축제 선정 군산 우체통 거리, 꾸준함과 화합으로 지속 발전

군산 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 신상철 부회장

마을 공동체인 「군산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는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주민(회원) 회의를 빠짐없이 해오고 있으며, 회의 시작 전에 간단한 마을 청소와 꽃박스에 물 주기를 자발적으로 실시합니다. 끝난 후 실시하는 회의 장면은 항상 영상 또는 사진에 담아서 회의록으로 남기고, 그 회의 결과는 즉시 회원 전체 카톡 방에 공유됩니다.

우체통 거리의 축제 기획 및 실시와 책자 출판 등의 모든 사업은 용역 처리하지 않고 주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활동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수행 역량 또한 준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선진지 견학단들이 우체통 거리를 지목해서 다녀갑니다. 공통적인 견학 후 소감은, “많은 것을 배워서 갑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더 일찍 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등입니다.

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에서는 오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제 우리가 고심하고 경험해 온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순번을 따라 마을 상가에서 강의와 질의응답을 합니다. 끝나면 마을과 홍보관을 안내하면서 체험도 병행합니다. 모두 즐거워하면서 의미 있어 하는 체험으로는, 1년 뒤 사랑하는 이에게 배달되는 ‘손으로 느린 엽서 쓰기’, 각 상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비로 미션 수행 선물을 주는 ‘말하는 우체통’ 체험, 홍보관에서 주민이 만든 기념품 구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군산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마을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전 일정 조정 시, 오시는 분들의 양

해를 통해 우체통 거리 식당에서 식사하기와 차 한 잔 마시기를 합니다. 이는 매출뿐만 아니라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친절도 향상 및 역량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체통 거리에는 이제 빈 집이 거의 없습니다. 꾸준히 새로 문을 여는 상가들이 들어왔고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와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아서, 우체통 거리의 ‘제6회 손편지 축제’가 전라북도 선정 2023 우수 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9월 8~9일 이틀에 걸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 많은 시민께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사진 찍기 좋고, 무료 체험도 365일 실시되고 있고, 맛집도 많은 우체통 거리에서 즐거움과 이득을 체험해보지 않은 시민이 있으시면 자주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해신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2023년 첫 정기회의

해신동 안지현 마을매니저

3월 27일 해신동 현장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년 처음으로 해신동 주민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정도진 회장을 중심으로 정철모·강호 부회장, 이정호 총무 등 20여 명의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모였다. 이날 2023년 첫 회의를 맞이하여 군산시청 도시재생과장, 담당주무관, 재생역량팀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했다. 또한 해신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새로운 얼굴인 안지현 마을매니저가 주민협의체 위원들과 처음으로 인사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 앞서 도시재생과에 새로 부임한 윤병철 과장님의 소개와 해신동 담당 도시활성화 계장님의 사업 계획과 현재 진행 상황 설명이 이어졌고 주민협의체 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올해 첫 회의인만큼 위원들이 다수 참석하였고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날 주된 회의 내용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환경개선과 불법주차 관련 문제였다.

위생적이지 못한 시장 상인들의 주변환경 개선문제와 불법·장기주차 문제를 단속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여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됐다.

2025년까지 계획된 도시재생 개발사업인 혁신성장센터, 수산물가공센터가 주민들과 관련이 깊은 만큼 주민협의체는 역량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팀, 환경개선팀, 기반시설팀, 마을지원팀 등의 분과를 나누기로 하였고,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해신동의 환경정화와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해신동 정도진 주민협의체 회장은 시의 부지매입과 국토부 사업추진을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끝인사로 “해신동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 했다.



해신동 마을 매니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산시 해신동 도시재생현장센터 마을매니저 안지현입니다.

저는 취업준비를 하던 도중에 군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도시재생 마을매니저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해신동 현장지원센터 마을매니저로 배정받는지 얼마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일하게 될 마을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숙지하고 해신동 재생사업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회원 관리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신동 마을분들과 소통하며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공모사업과 환경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도시재생과 역량팀장님의 업무지시를 받아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사이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해신동 도시재생사업 기간 동안 열심히 주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협업이음데이

**‘살고싶고, 투자하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군산 만들기’에 머리를 맞대다**
군산시 협업이음데이-도시재생도 함께하겠습니다.



일과 부서, 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3월 24일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협업이음데이’ 행사가 열렸다.

이 날 행사는 ‘새로운 콘텐츠를 통한 도시브랜딩’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 관광, 도시재생, 체육, 홍보, 인구정책, 교육, 일자리, 소상공인 등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특화된 도시브랜딩을 위한 역량 결집과 적극적인 네트워킹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사업 운영자인 커넥트군산 성훈식 대표가 ‘도시브랜딩과 로컬크리에이터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군산 시민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이뤄질 도시재생사업과 소통협력센터 사업들을 알리는 기회도 가졌다.

군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높은 다양한 자원들을 새롭게 브랜딩하고 매력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이 그 중심에 서길 기대해본다.



화요일클래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 화요일 클래스 꽃꽂이 교육 

2023년 1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2시간씩(10시~12시) 진행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 화요일클래스 교육이 종료되었다. 화요일 클래스 교육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기초적인 상품 디자인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창업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일부 일조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본적인 디자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12주 동안 진행된 교육은 돛형 센터피스를 시작으로 선물용 꽃다발, 꽃바구니 만들기, 리스, 토피아리 만들기 등 실기 중심 체험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다양한 행사 목적에 따라 상품들을 제작하여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과 동시에 꽃집 운영에 이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산시 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

미운오리새끼, 백조가 되어 날아갈 준비를...
복합문화공간 + 소통협력공간으로 재탄생

군산 시민문화회관의 리모델링 공사가 본격 시작됐다. 본 사업은 지난 19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비50억 도비8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90억원이 투입되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으로 문화공간과 수익공간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공연장(메인홀)과 전시장(시민홀)은 문화공간, 로비카페와 레스토랑, 로컬샵 등은 수익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오랫동안 방치된 문화예술회관을 차별화된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실행해보는 사회실험행사, 지역자원연구, 전국 최초로 시행한민관협력 방식의 운영자 및 설계자 선정 등 다양한 시도와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공공성과 수익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최종 마련하고 올해 3

월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한국 현대건축의 거장 故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인 구 시민문화회관은 1989년 개관해 시민들의 문화·공연·전시 활동의 주축을 담당해 왔고 건축물 자체로도 건축학적,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2013년 군산예술의전당 개관과 동시에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장기간 방치되어 온 상태다.

특히,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현안 문제들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장소로서의 기능이 더해짐으로써 지역활력을 견인할 새로운 거점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인의 초대-주차공간 활용 사회실험〉



〈THE GRANG FESTA-옥상공간 활용 사회실험〉



〈시민회관 조감도1〉



〈시민회관 조감도2〉



군산시 도시재생 인정사업 ②

군산시 경암동 복합센터 조성사업

생활문화 + 교육 + 행정을 한번에~!!

지역커뮤니티의 새로운 핵심거점시설로!!

군산시 대표적인 원도심 학교인 구암초등학교의 일부 유휴부지와 현 경암동 주민센터 부지를 동시 활용한 경암동 복합생활SOC센터 신축 공사가 본격 시작됐다.

본 사업은 지난 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비50억, 도비8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93억원이 투입되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으로 1동 3층, 연면적1,991㎡ 규모의 문화복지교육 프로그램실, 운동시설, 주민센터, 아이돌봄시설 등이 들어서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공모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라북도 교육청, 군산시 교육지원청, 구암초등학교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도심공동화 현상, 인구 유출 등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던 경암동 지역에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학생, 주민, 노인 등 세대 간 교류가 촉진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되는 거점시설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이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54021 군산시 구영 7길 129

T. 063. 454. 4477~8 F. 063. 442. 1168